

# 강도일록(江都日錄)

## 서지정보

서명	강도일록(江都日錄)
저자(성명/자/호)	신달도(申達道), 형보(亨甫), 만오(晩悟)
판사항	木活字本
체크기	20×27
발행자	
발행년	1927
주제	전쟁관련일기
작성시기	17 세기 / 1627-01-17 ~ 1627-03-23
소장처	(원소장처) 풍산김씨 영감택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해제

「강도일록(江都日錄)」은 신달도(申達道, 1576~1631)의 문집인『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권 7 제11엽부터 제32엽까지 모두 43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목활자본이다.

이 일기는 정묘년(丁卯年, 1627) 정월 17일에 평양감사 윤환(尹暄)이 “노적(奴賊)이 13일에 의주를 침범하고 14일에 정주(定州)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데서 시작하고 있다. 즉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9년 전, 정묘호란의 발발 사실로 일기는 시작하고 있다. 임금과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하여 그 곳에서 쓴 일기라 제목을 ‘강도일록(江都日錄)’이라고 한 것이다. 일기에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허둥대던 임금과 신하들의 언행이며, 조선을 침략한 북방의 오랑캐 후금(淸)과 왕래한 문서, 여러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 등도 기록하고 있다. 후금에게 패배를 거듭하던 중, 그해 3월 후금과 화친이 맺어지자, 일기 역시 3월 23일에서 기록을 멈춘다.

신달도의 자는 형보(亨甫),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아주(鵝州)이며, 조목(趙穆)과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배웠다. 1610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당시 조정이 어지러워 과거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정묘호란 때 임금이 강화(江華)로 들어가고 최명길(崔鳴吉)이 화의를 주장하여 강화(講和)를 맺으려고 하자, 윤환(尹煥)과 함께 강화의 부당함을 거침 없이 따지는 상소를 올렸다.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고, 1631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도승지로 증직

(贈職)되었다.

「강도일록」은 정묘호란 때의 경과를 왕이 파천(播遷)한 강화에서 기록한 것으로, 「유경일록(留京日記)」과 함께 정묘호란 당시 우리나라 조정의 동향과 후금(淸)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역사 사료이다.